



I. 이달의 소식

1. 정기모임 안내 1쪽
2. 지부소식(기도제목, 강연내역) 16쪽

II. 특집

1. 교과서와 기원문제(5) 2쪽

III. 내용

1. 정재훈 칼럼(32) 화가 헤켈 5쪽
2. 창조기사(55) 세포속 모터 - 이종현역 9쪽
3. 성경여행(100)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다 13쪽

인사말(새해 다짐)



마태복음 6:33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mega theme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義 움을 의 단어 뜻풀이를 보면 ①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正當)한 도리(道理). ②남과 골육(骨肉)과 같은 관계(關係)를 맺음(네이버 사전)으로 나와 있다. 움을 의를 한자를 보면 양 양 羊 + 나 아 我 (= 손 수 手 + 창 과 戈)로 이루어져있는데 예수님 어린양의 피로써 나를 덮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가난한 시골교회의 목사아들로 태어나 뭐하나 제대로 가진 것 없이 자랐지만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최우선으로 하며 살려고 애써왔다. 돌이켜보면 공부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문제, 난치성 희귀병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오신 건강의 문제, 최고의 아내를 허락하신 결혼문제,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직장문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같다.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살려고 다시 한번 새해에 다짐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도 힘을 다하려 한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부지부장 전창진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2018년 1월 18일 목요일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1월 정기모임은 “대구지부 심화과정” 중에 있는, 권진혁교수님의 “우주창조와 연대1,2” 강의를 함께 듣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부터 간식)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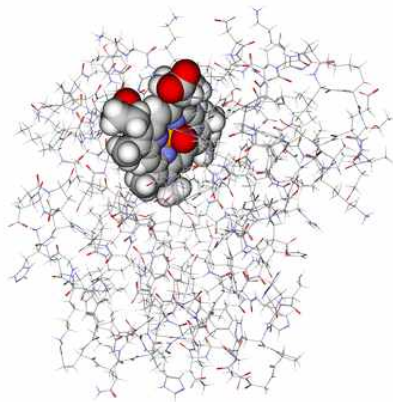
주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64(4층)

문의: ☎ 070-4095-6420, 010-2051-0922



단백질은 우연한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노휘성 글(과학교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헤모글로빈의 입체구조

세포에서 인간의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구성과 생체 내 반응들은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에 의존된다. 재료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인데, 특정한 순서로 수십~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셀 수 없이 다양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되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 섬유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서부터 뼈, 연골, 근육, 피부 등 우리 몸 대부분을 구성한다. 그 외에도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 인슐린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 모든 생체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들, 병균을 막아주는 항체들,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들, 눈의 망막에서 광자(photon)를 인식하는 로돕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다. 사람을 이루는 단백질의 종류가 약 10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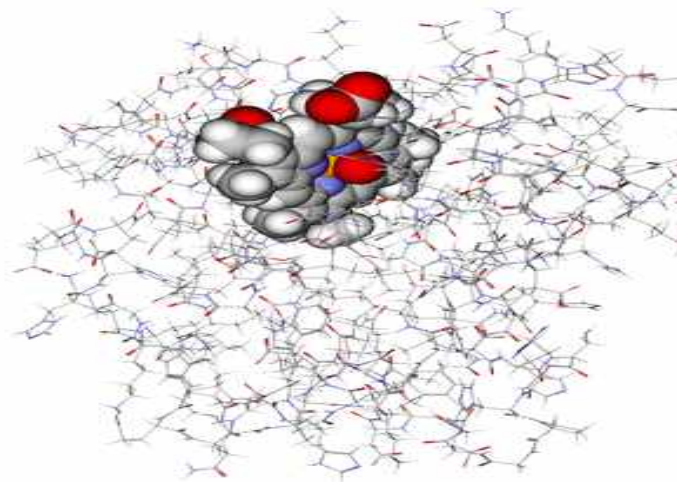
이 수많은 단백질들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어떻게 고유한 기능을 갖는 것일까? 진화론자들은 단백질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고 있다.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농축된 유기 수프 같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아미노산들이 길게 연결되는 중합반응이 일어나 원시 단백질(프로테노이드)이 생성되었다고 설명

한다. 우리는 이미 아미노산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때, 지구의 조건과 다른 전제 하에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생명체에 사용될 수도 없는 결과임을 살펴보았다. 아미노산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이론은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여 아미노산들이 자연적으로 수십~수백 개씩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넘어간다. 교과서의 진술을 보자.

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의 중합 반응이 뜨겁고 건조한 화산의 가장자리나 뜨거운 원시 바다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중략) 이렇게 형성된 프로테노이드는 단백질 분자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중략) 이렇게 결합 반응에 의해 크고 복잡한 분자가 형성된 후 이들이 스스로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신체의 구성성분이나 물질대사를 촉매하는 효소 등 생명체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였다.(1)

여기서 다시 새로운 전제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지구 초기 바다가 아미노산이나 핵산 등이 농축되어 수프처럼 걸죽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또 하나, 아미노산이 중합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매우 뜨거웠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전제는 확인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가정들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세상에서 아미노산들이 길게 연결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곳은 단 한 곳 밖에 없다. 세포 안에서이다. 그 외 어디서든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이 주어질지라도 저절로 중합되어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고분자 덩어리로 연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험실에서조차 정제된 아미노산을 수 시간동안 인위적인 고온(170℃)에서 가열해야 겨우 중합체를 얻을 수 있으며, 시간과 조건을 잘 맞추지 않으면 고온에서 모두 파괴되고 만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실험실에서 중합된 유사 단백질은 라세미 화합물일 뿐 아니라 특정 순서로 배열된 것도 아니어서 생명체에 사용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슐린의 입체구조

아미노산이 저절로 길게 결합되는 일이 자연에서 일어나지도 않지만, 독특한 기능을 하는 수만 종의 단백질들이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 조직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낸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단백질들이 독특한 입체구조 -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가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2) 이러한 일은 물질들을 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치밀하고 방대하게 조직화하는 고도의 정밀한 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설계의 산물이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을 아주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물질의 구성 요소를 아시고, 구조를 파악하고 계시며, 또한 그 질적인 변화를 순간적으로 일으킬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인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질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기적을 읽을 때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기사를 읽을 때 전혀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요 1:3) 때문이다. 더불어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실 때, 물질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단백질 분자들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즉각 갖추졌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1] 안태인 외 11인(2011),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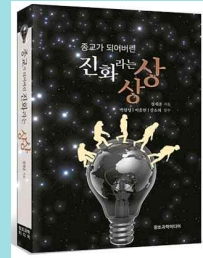
[2] <http://mulli2.kps.or.kr/~pht/10-3/010309.htm> [참조](#)

정재훈 칼럼(32) 화가 헤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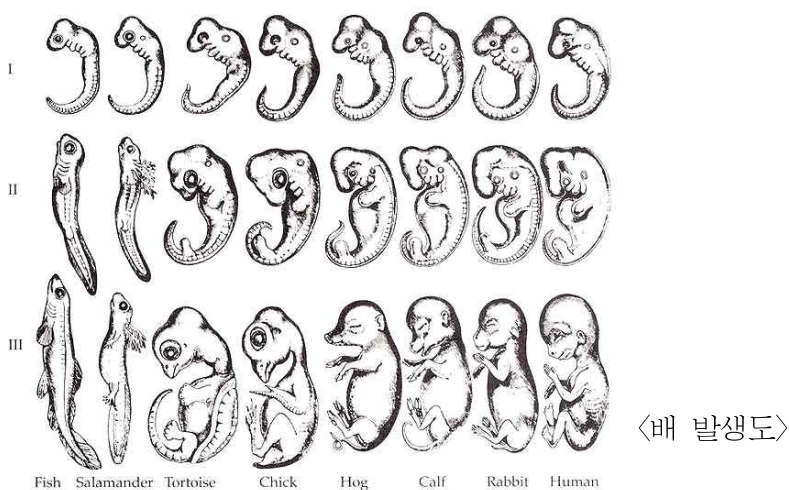
정재훈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대구관문초등학교 교사)

32. 화가 헤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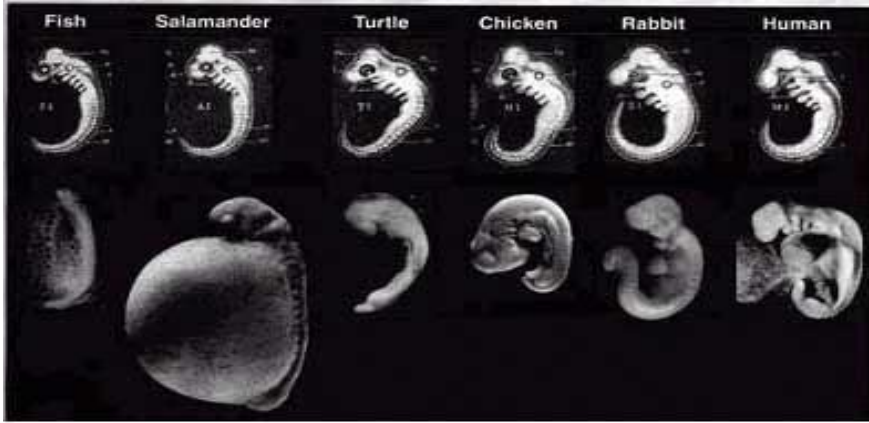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32	화가 헤켈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정재훈	



사실 ‘헤켈(Ernst H. Haeckel)’은 화가가 아니다. 독일 예나 대학교(University of Jena)의 비교해부학 교수였던 헤켈은 다윈의 진화론이 진실임을 증거하기 위해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다. [411] 다윈은 동물 배아의 생김새가 서로 닮았다는 것은 이것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라며 배아의 유사성을 가장 강력한 진화의 증거라고 했다. 다윈 이후의 진화론자들도 최근까지 이것을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웠다. [412] 헤켈은 다윈을 흡족하게 했던 ‘배아 그림’을 그렸다.



물고기, 도롱뇽, 거북, 병아리, 돼지, 송아지, 토끼, 사람 배아가 비슷하게 그려진 헤켈의 배아 그림은 마치 생물의 진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잘못 그려진 것임을 알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실제 배아의 초음파 사진들을 보면 그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413]



〈헤켈이 그린 배아들과 초음파 사진의 비교〉

헤켈은 다윈이 세운 가설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게끔 유사한 배아들만을 골라서 그렸는데, 양서류의 대표로는 가장 흔한 양서류인 개구리의 배아를 그리지 않고 도롱뇽의 배아를 선택하여 그렸다. 왜냐하면, 개구리의 배아가 다른 배아들과 매우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헤켈의 그림에서 모든 배아의 크기는 비슷했지만 이는 명백한 조작이었다. 그는 크기가 최고 10배 이상이나 다른 배아들을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도록 그린 것이다. 헤켈이 그린 배아 발생도는 명백한 조작이었고, 과학 논문 변조로 인해 ‘빌헬름 히스(Wilhelm His)’와 여러 사람에게 의해 고소를 당했었다. [414] 그렇지만 여전히 헤켈이 그린 배아 발생도는 진화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인용문) 초기의 사지동물들은 발가락 수를 이러저러하게 달리 해보는 ‘실험’을 요즘보다 더 자유롭게 즐겼던 듯하다. 그러다가 발생학적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다섯 개로 고정되었을 것이고, 한번 그 단계가 진행되자 다시 물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절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요즘도 가끔 발가락이 여섯 개인 고양이와 있고, 사람도 그렇다. 잉여의 발가락은 발생 중에 실수로 중복현상이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415]

‘즐겼던 듯하다.’, ‘고정되었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이다.’,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는 없다.

기린, 시조새, 말과 함께 진화론의 아이콘으로 널리 사용되는 사례 중 하나로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finches)라는 새의 변이현상이 있다. 다윈은 이 핀치의 부리가 종에 따라 약간씩 변해 있는 점에 주목했고 다양한 부리의 모양에 따라 13종의 핀치로 분류했다. 다윈은 13종의 핀치가 공통조상

에서부터 서식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된 것으로 생각했다. [416] 『완전한 진리』의 내용에 의하면 진화론자들이 소개한 핀치의 부리 변화는 겨우 밀리미터의 10분의 1단위로 측정 가능한 정도의 작은 크기에 불과하다. [417]

(인용문)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본래 있었던 다양한 씨앗들이 맺히면 부리의 크기는 원래 크기로 되돌아간다. 핀치 부리의 변화는 진화론자가 소개했던 잔가지 형태의 진화 모형이 아니라 순환적인 변이었다. 이것은 핀치가 다양한 기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적응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일 뿐이다. [418]

핀치는 날개를 가지고 있기에 먹기 알맞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먹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 몰려 살게 된 것은 그저 자연의 모습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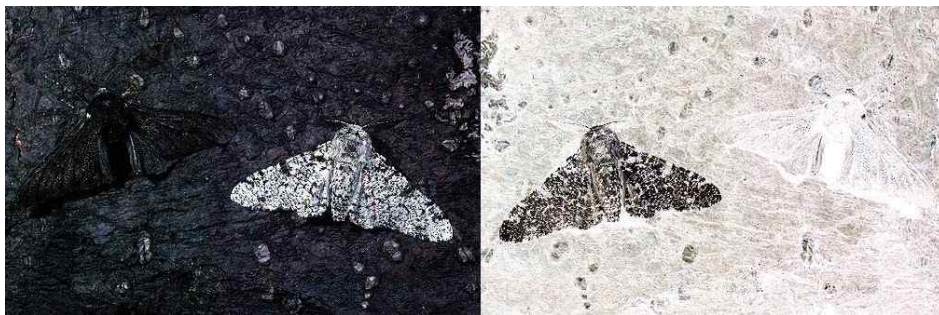
진화론자들은 바이러스의 내성을 진화의 증거로 즐겨 사용하지만, 그것은 바이러스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내성이 없는 바이러스는 죽고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살아남아 번식하게 되면서 체내의 바이러스 비율이 바뀐 것뿐이며, 신종 바이러스라 불리는 것은 기존의 DNA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정보와 섞이거나, 다른 정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김새나 특성이 표현된 것이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박테리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진 특성일 뿐이다.

어떤 생물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뱀은 자신의 꼬리를 자를 수 있고, 플라나리아(planaria)는 몸을 자르면 잘라진 부분이 재생된다. 이것들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이다.

반세기에 걸쳐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들었으나 초파리가 아닌 다른 종류의 피조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미국 공영 방송인 PBS의 '진화' 시리즈에서는 네 개의 날개가 달린 돌연변이 초파리가 등장했지만, 추가된 날개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19] 움직이지 않는 날개가 무슨 소용일까? 진화론자들에게 물으면 - 묻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날개도 움직일 수 있게 진화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날개가 여섯 개가 달리든, 눈이 두 쌍이 생겨나든, 눈의 색이 무지개색이 되든, 결국 그것들은 다른 생물이 아닌 초파리일 뿐이다.

진화론자들은 산업혁명으로 갑자기 많은 공장이 생겨난 영국 맨체스터지역에서 어두운 색의 나방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고 했다. 어두운 색의 나방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그을음 때문에 나무의 몸통이 까맣게 되어 버려 밝은 색의 나방이 어두운 색의 나방보다 새의 눈에 잘 띄어서 잡아먹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교과서에도 실

려 있었다.



〈맨체스터 지역의 나방〉

그러나 얼룩나방은 야생에서 나무의 몸통에 앉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은 텔레비전다큐멘터리 제작을 도왔던 한 과학자가, 자신이 죽은 나방을 나무에 붙인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연출된 사진으로 판명되었다. [420] 과학자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언론인 ‘주디스 후퍼(Judith Hooper)’는 과학 연구에 이런 가짜가 허용되는 이유는 과학자가 절실하게 그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421]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창조**

세포 속의 모터

*배워야 할 단어

-모터: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제공하는 기계장치

-단백질: 아미노산으로부터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져 생명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기 분자

-진핵세포: 핵을 갖는 세포. 식물과 동물은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다. 박테리아는 원핵생물이다: 그들은 세포핵이 없다.

-RPM: 분당 회전수(완전한 회전)

-효율: 운동에너지/입력에너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퀴는 공학적인 해결을 솔직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지만, 진화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리처드 도킨스, 선도적인 진화론자이며 무신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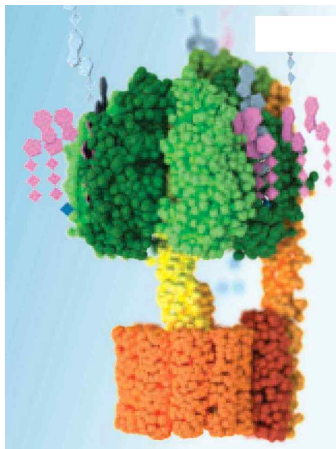
기술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것은 정말 놀랍다! 2018년형 페라리 812 슈퍼카를 보라 - 맵시가 나고 정말 멋지게 보인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강력한 모터이다. 즉, 시속 340km(210마일)의 최고 속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레이서 X 드론은 46,000 rpm(분당 회전수)으로 돌고 최고 속력 283 km/h(176 mph)인 프로펠러 4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전체 엔지니어 팀이 모터 및 동력 부품들이 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설계를 시험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기계들이다.



자동차 모터가 갖는 한가지 문제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바퀴를 돌리는 데에 사용되는 대신에 열로 손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에는 냉각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터가 과열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모터는 에너지 손실이 적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최고의 가솔린(석유) 엔진은 효율이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즉, 에너지의 3분의 1 미만이 운동으로 변환된다). 최고의 하이브리드 엔진은 약 45%이다.

기술이 더 나아지는 한 가지 길은 어떻게 하면 모터를 더 작게 만드는가 생각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것은 모터의 다른 모든 부품들이 서로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하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어떤 한계를 넘어서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 너무 작아서 현미경 없이 볼 수 없는 기술을 나노기술이라고 부른다.

우리 세포 속의 작은 모터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우리 세포 속에,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모터를 수십억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모터를 ATP 합성효소(synthase)라고 부르며(옆의 그림) 당신의 몸 속에 수 조 개를 가지고 있다. 1밀리미터 안에 10만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이들 모터들은 우리의 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은 ATP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하루에 사람 몸무게만큼이나 만든다! 시안화물은 ATP 생산을 멈추게 하므로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

이 모터는 전류에 의해 동력을 얻는데, 세포의 다른 부분이 작은 배터리와 같이 작동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분당 10,000회전을 하는데 한번 돌 때마다 ATP 세 개의 분자를 생산해 낸다. ATP 모터는 거의 100% 효율을 갖는다. 즉 거의 **모든** 전기에너지가 ATP로 변환된다.

ATP 합성효소는 진화되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생명체를 갖기 전에는 진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ATP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creation.com/atp 사이트에 들어가서 ATP 합성효소가 작동하고 있는 비디오를 보라.

놀라운 ‘하나님-기술’의 또 다른 예로 키네신 모터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세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단백질을 만든다. 그런데 그 단백질들은 올바른 위치로 보내져야 한다. 그런 곳에 키네신 모터가 들어 있다. 키네신은 단백질을 좁은 ‘도로’(미소관)를 따라 세포 속의 정위치로 데려다 주는 ‘걸어다니는 분자’로서 주소 표기를 따라간다! 1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125,000 ‘걸음’을 옮기며 매 초당 100걸음을 이동한다.

키네신 모터의 비디오를 보려면 creation.com/kinesin 사이트를 가 보라.



이들 모터를 누가 만들었나?

ATP는 살아있는 세포를 위한 만능 ‘연료’이므로 모든 생명체는 ATP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다(일부 기생충 박테리아는 제외 - 그들은 원래 ATP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던 박테리아가 퇴화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핵세포는 키네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듯이 생명의 실질적인 시작부터 이들 복잡한 모터들이 주변에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모터들이 지적인 엔지니어가 없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언급한 기계들은 그것들이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설계자 팀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모터들은 자동차 혹은 드론의 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포 속의 놀랍도록 복잡한 모터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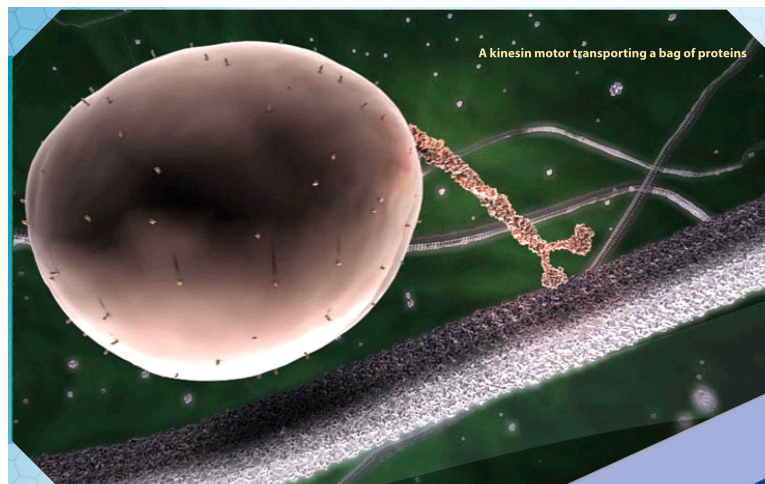
성경은 시편 139:13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것은 모든 세포 속에 있는 놀라운 기계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만든 모터가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호화로운 차가 고물상에 태풍이 불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세포 속에 있는 신기한 모터 뒤에 놀라운 설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우리는 세포 속에 있는 몇가지 흥미로운 기계에 대해 배웠다. 그런데 그것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다. 세포 속에 있는 모터에 관하여 오늘 배운 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모터를 가진 것을 당신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모터들이 설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출처: Creation magazine Vol. 40(2018), No. 1, pp.34-37 [참조](#)

100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다

(느헤미야 4-7)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정복당했으며, 많은 백성들이 앗시리아로 잡혀갔다. BC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 시점에서 앗시리아는 세계의 패권에서 사라졌고 바벨론이 그것을 넘겨받았다. 다니엘과 몇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귀족 청년들 중에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다.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으며 페르시아 제국 안으로 삼켜졌다. 에스더는 BC 481년경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세스 1세(아하수어로)와 결혼한 왕비였다. 크세르세스의 뒤를 이은 사람은 아르탁세르세스 1세(BC 464-424)였다. 그의 통치하에 있을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왕의 잔을 든 자였던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다(BC 445년경).



<왕궁의 컵을 든 자가 자기 왕에게 컵을 내밀고 있으며, 야자수 잎사귀로 만든 파리채로 파리를 쫓고 있다.>

예루살렘의 문들

고대 도시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벽이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벽에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골프의 티모양으로 생긴 세 개의 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짧은 면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서쪽 벽에는 분문(Dung Gate)과 골짜기문(Valley Gate)이 있었다. 북쪽 벽에는 Old 혹은 Jeshanah Gate와 어문(Fish Gate), 그리고 양문(Sheep Gate)이 있었다. 동쪽 벽에는 Inspection, Muster, 혹은 Miphkad Gate, 동문(East Gate), 마문(Horse Gate), Water Gate 그리고 Fountain Gate가 있었다.

아르탁세르세스 왕

아르탁세르세스 왕은 크세르세스 1세의 아들이며 아하수어로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에스더 왕비가 아

르탁세르세스의 어머니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녀가 그의 친모인지는 의문이다. 아르탁세르세스는 유대인들에게 친절했으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그 왕은 이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기 제국의 변방이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성벽 작업 인부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도왔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향료제조인, 금세공인, 상인,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성벽 보수에 참여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벽이 처음 세워진 때의 이야기는 BC 1800년경에 시작된다. 성경시대에 성벽은 힘과 번영의 상징이었다. 성벽은 그 도시가 번영하고 중요하다는 표시였다.

예루살렘 성벽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건설되고 파괴되었다. 때때로 그 성벽은 동일한 위치에 정확히 재건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벽은 이전의 것과 전혀 닮지 않았었다.

BC 1000년 경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는 이전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자신의 성벽을 추가하여 그 도시를 넓혔다. 300년 후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벽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만 했다. 그리 오래지 않아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큰 벽을 허물었다. 그것이 100년 넘게 폐허로 남아 있다가 느헤미야가 그의 놀라운 재건 사역을 시작했다. 그 때 이후로 예루살렘은 수많은 전쟁과 충돌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성벽이 그 현장에 있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오늘날 서 있는 성벽의 아래쪽 멀리에 있다.

성벽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

호론 사람 산발랏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의 지도자였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벳호론 출신일 것이다. 이것이 그를 호론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이다. 바벨론 말로 그의 이름은 신-우발랏이었으며

그 뜻은 “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이다. 여기서 신은 바벨론의 달의 신이다. 산발랏은 아마도 그의 지위 안에 유다도 포함시키기를 원했을 것인데 느헤미야의 도착이 그런 가능성을 위협했다. 그의 두 아들 딜라일라와 셀레미야가 유대식 이름을 가졌고 그의 딸이 나중에 대제사장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로 보면 그가 나중에 느헤미야의 사람들과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느헤미야는 대부분 왕의 컵을 든 자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자로 기억된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는 여전히 거대한 돌 성벽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보인 성벽은 AD 1542년에 옛날의 기초 위에 건설된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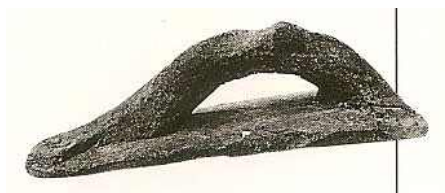
도비아는 아마도 페르시아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였을 것이다. 그와 그의 아들이 모두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였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를 성전 안에 있는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했지만, 후에 느헤미야가 그를 내보냈다.

아라비아 사람 계셈

계셈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함께 느헤미야의 대적자였다.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설명은 페르시아를 위한 예돔의 통치자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아니면 고대 미디안 땅의 시내산 동쪽 엘랏 만을 가로지르는 드단의 통치자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페르시아의 아르탁세르세스 1세의 컵을 든 자였다(BC 464-424). 이는 큰 신뢰를 얻었고 중요한 지위였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에 대해 배우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행동하기 이전에 사물을 사려 깊게 연구하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그의 적대자들을 얼마나 빈틈없이 대하는지를 주목하라. 거기에는 주변지역 출신 사람들도 있고 그의 지도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부유한 유대인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이율을 부과하거나 돈을 못 갚으면 동료 유대인을 노예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건축 연장은 오늘날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림에 있는 석공의 흙손은 이집트 시대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것도 거의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참조](#)

지 부 기 도 제 목

1. 지부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앞서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소서.
2. 차세대의 젊은 창조과학자들을 세워주셔서 본인의 연구 성과가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3. 2018년 전국학술대회 준비가 잘 되도록 - 2018년 5월 19일 대구에서 개최될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강사들이 잘 섭외되게 하시고,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잘 선정하게 도우소서. 학술대회가 개최될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경산중앙교회).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여 대회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기독교계가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소서. 신학대학들이 연계하게 하시고, 훌륭한 과학적, 신학적, 세계관적 연구 성과가 나타나 학술대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술대회가 되게 하소서.
4. 생물학, 물리학, 지질학의 일반 이론을 배우는 창조Study 모임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5. 대구와 구미의 심화과정 6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도록
6. 지속적인 군부대 및 학교사역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게 하소서.
7. 후원교회들(대평교회, 동로교회, 동성교회, 삼일교회, 시와찬미교회, 아멘교회, 여남교회, 영안교회)이 말씀에 바로 선 영적 성장을 하며, 더 많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후원 교회가 생기게 하소서.
8.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부 회원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소서.

12월 강연 내역

이종헌	2017-12-01	성광중 3-9	진화의 허구와 창조의 증거들
이종헌	2017-12-01	성광중 3-10	진화의 허구와 창조의 증거들
김항구	2017-12-01	성광중 3-6	진화의 허구와 창조의 증거들
김항구	2017-12-01	성광중 3-5	진화의 허구와 창조의 증거들
이종헌	2017-12-04	구미심화6기(2주차)	생명의 수학적 디자인
정재훈	2017-12-04	구미심화6기(2주차)	진화론의 역사와 진화주의1
이종헌	2017-12-06	독수리교회장병	생물진화의 실체
정재훈	2017-12-07	대구심화6기(2주차)	진화론의 역사와 진화주의
김영호	2017-12-07	대구심화6기(2주차)	생명정보의 기원
김경태	2017-12-14	대구심화6기(3주차)	정크DNA는 쓰레기인가?I
김경태	2017-12-14	대구심화6기(3주차)	정크DNA는 쓰레기인가?II
정재훈	2017-12-16	C국 H시(현지인)	성경대 과학
정재훈	2017-12-16	C국 H시(현지인)	진화론의 오류와 창조의 증거
정재훈	2017-12-16	C국 H시(현지인)	노아홍수의 창조과학적 접근
정재훈	2017-12-17	C국 H시(강사)	진화론의 모순과 창조의 증거
정재훈	2017-12-17	C국 H시(강사)	노아홍수의 창조과학적 접근
권진혁	2017-12-18	구미심화6기(4주차)	우주창조와 연대
전창진	2017-12-18	구미심화6기(4주차)	생명설계
이종헌	2017-12-20	독수리교회장병	지층과화석의 형성
이종헌	2017-12-27	독수리교회장병	빅뱅이론의 실체
이종헌	2018-01-03	독수리교회장병	노아의 홍수

1월 이후 강연 예정

강기태	2018-01-08	구미심화6기(5주차)	성경적 빙하기
지명구	2018-01-08	구미심화6기(5주차)	타협이론
전창진	2018-01-11	대구심화6기(4주차)	생명설계I
전창진	2018-01-11	대구심화6기(4주차)	생명설계II
이종헌	2018-01-15	구미심화6기(6주차)	창조Q&A
권진혁	2018-01-18	대구심화6기(5주차)	우주창조와 연대1
권진혁	2018-01-18	대구심화6기(5주차)	우주창조와 연대2
이종헌	2018-01-25	대구심화6기(6주차)	창조Q&A

지 부 소 식

1 월 18일(목) 정 기 모 임

2017년 11월 27일~2018년 1월 15일(6주)

창조과학 심화과정(구미) 매주 월요일 저녁6시30분 ~ 10시(장소: 구미강동교회)

2017년 11월 30일~2018년 1월 25일(6주)

창조과학 심화과정(대구미) 매주 목요일 저녁6시30분 ~ 10시(장소: 대구지부전시관)

** 편집인의 변 **

이번 호부터 편집을 맡게 된 이진우 전도사입니다.^-^ 아직 제 이름이 생소할 것 같아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산시에 위치한 환상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부서는 학생부와 청년부 그리고 베트남 가족모임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저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2002년도에 경북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대구, 경북의 여러 대학교에서 환경, 보건관련 과목을 강의하였으며, 환경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환경보전협회의 환경관리인 교육(대기오염관리 전공)을 전담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목사고시를 초시에 통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비전은 저의 경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게 되겠지만, 먼저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과 박사과정에 다시 입학하여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목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시설 등의 전담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문화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창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성경 역사에 대한 의문점들이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과 관련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통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지만 알면 알수록 의문점들이 더 늘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이러한 의문점들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아는 선배님의 권유로 창조과학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길 준비가 되어있기에 편집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21.or.kr@gmail.com)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